

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
평화를 넘어 **통일로**



학생독립운동기념탑

소재 :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, 2006년

1929. 11. 3. 광주학생독립운동

나는 11·3 『학생독립운동기념일』을 아는가?

1 의 의

- 민족적 차별교육과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벌였던 항일독립운동
- 학생들이 중심·자발적 참여로, 불의에 저항한 전국적인 민족 자주독립운동

2 발생경위

- 1929년 10월 30일,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여학생 희롱사건(맹기머리 사건 주인공 박기옥·이광춘 등, 당시 광주여고보 3년, 현 전남여고) 한·일 학생간 충돌이 발단
- 1929년 11월 3일, 광주에서 광주고보(현, 광주제일고)와 광주농업학교(현, 광주자연과학고)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생시위운동으로 촉발

3 전개과정

- 1929년 11월 3일, 1차(광주역 반일시위)
- 1929년 11월 12일, 2차(광주지역 대부분 학생 및 시민참여, 대규모 반일시위), 전국적으로 전개 확산
- 학생시위 경성, 평양, 함경도 등 국내지역과 만주 간도지역 등 확대

4 규모와 결과

- 당시 320개교 참가, 학생 54,000명 참가, 구속 1,600여명, 퇴학 및 무기정학 2,900여명 (광주에서만 260명 구속)
- 북한지역 130여개 학교 참가, 전체 학생독립운동의 40% 수준

5 평가

-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 ‘3·1운동’, ‘6·10만세운동’, ‘11·3 학생독립운동’
- 규모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제2의 ‘3·1운동’으로 평가
- 1929년 당시 세계적 관심과 지지를 받은 독립운동(워싱턴포스트지WP 보도 등)

6 계승 발전

- 학생독립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애국심 함양을 고취 역사적 의미 재조명 평가
- 1919. 3·1운동 → 1929. 11·3 학생독립운동 → 1960. 4·19혁명 → 1980. 5·18 민주화운동 → 2016. 촛불혁명 → (학생민주주의 발전)

※ 남북한 학생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및 평화를 넘어 통일로 발전 기대

|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연혁 |

- 1953.10.20. 『학생의 날』 제정, • 1973.03.30. 『학생의 날』 폐지
- 1984.09.19. 『학생의 날』 법정기념일 부활
- 2006.09.06. 『학생의 날』을 『학생독립운동기념일』로 명칭 변경